

름으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고,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고난 뒤에 받을 영광과 상급을 믿기에 인내하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롬 8:18).

그러면 주님께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위 면에 있어서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함이 ‘정녕 진실한 것이었는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외형적으로는 구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벌이고 그 규모도 점점 더 커졌지만,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사업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이 자신들의 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기원 전 9세기경, 시돈 왕 엡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시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물론, 신하와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지요. 이로 인해 삼 년 반이나 계속되는 가뭄과 이방 민족의 침략 등으로 온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오랜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으로써 참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했음에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다. 오히려 그를 죽일 생각만 했지요. 아합 왕을 사주해 각종 술수와 꾀계를 일삼으며 악을 쌓은 그녀는 결국 엘리아의 예언대로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악의 근원을 교회 안에 용납함으로써 죄악에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고후 6:14-16). 더욱이 교회 안에 세상 풍조를 끌어들이는 일이나 비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시험과 환난이 따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자신의 믿음에 휘방받으며 차츰 미혹되어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4.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꺾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제단에 올린 음식을 먹는다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음식을 먹을 때 따르는 온갖 범위를 경계해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에 동참해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나아가 우상 숭배자들의 음행에까지 동참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지요.

사도행전 15:29을 보면 사도회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꺾’과 ‘뭇매어 죽인 것’과 ‘음행’의 네 가지를 멀리하도록 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사도회의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한 다른 것은 허용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금한 까닭은 그것을 가까이하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나 그와 관련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딤후 4:4).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앞에 놓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죄할 수는 없지요. 설령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7을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

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이는 스스로 양심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 나도 괜찮겠지” 하며 무분별하게 먹는다면 자칫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행음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육적인 행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행음이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유혹해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고 비진리를 쫓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5.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하는 경우들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종교의 현지 토착화라는 명목 아래 토착 신앙이나 풍습까지도 자신들의 종교 안에 포용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일을 허용합니다.

물론, 조상의 은혜를 가리며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명분 아래 제사 의식을 허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 위배됩니다(고전 10:20).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단체와 교류하며 서로 축복을 빌어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너그러운 마음이고 인류 전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선한 마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여타 종교와 손잡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의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자들을 끌

어들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의 형상 앞에 절하며 복을 빌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며 섬기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단지 구세주 예수님을 낳은 분께 대한 공경의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향해서는 ‘어머니여’ 하지 않고 ‘여자여’ 하고 부르셨습니다(요 19:26-27, 요 2:4).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신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으니 누군가 하나님을 낳은 것도, 만들어 낸 것도 아닙니다(출 3:14). 마찬가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머니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정자와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잉태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진리에 위배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안에서도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보다 이로 인해 많은 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술과 담배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고전 3:17).

그런가 하면 대리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딤후 25)가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대리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더구나 대리인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말한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Surprise!

• 마치 바닷속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의 여러 가지 형상을 찾아보세요.
· 구피 · 자리돔 · 천사물고기 · 열게돔 · 금붕어 · 돌고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깊고 푸른 하늘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오로라 빛처럼 은혜와 감동의 GCN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7 July 주요프로그램

-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창조의 섭리’ 당회장 이재록목사의 **창세기강해**
-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특별은사집회 1,2,3**
- 특선영화 **‘왕중왕’**
- 이수진 목사의 TV설교 **‘팔복’**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1577-2073
MANMIN tv